



〈두 아들, 두 기도〉, 김익규 작, 2002년, 리놀륨 판화, 작가소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마태 21,31-32)

[제1독서] 예제 18,25-28

[화답송] 시편 25(24),4-5,6-7,8-9
(© 6년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필리 2,1-11 <또는 필리 2,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태 21,28-32

만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만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29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31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만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그림 해설



〈두 아들, 두 기도〉, 김익규 작

이 작품은 예수님의 비유를 소재로 한 연작 판화 가운데 하나이다. 두 아들이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오른쪽의 아들은 고개를 들고 거만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구원을 받지 못함을 상징하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왼쪽에 있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바치고 있다. 그 뒤에는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구원을 상징하는 주님의 모습이 흰 그림자로 나타나 있다. 〈정용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은 꽤나 불편합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 죄인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꽤나 불편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한 모든 일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불편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용인되는 듯하여 불편하고, 그래서 복음의 예수님이 알립기까지 합니다.

불편한 마음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니 그냥 두기로 합시다. 그런데 왜 불편한가를 되묻는 것은 어떨까요? 무슨 기준으로, 어떤 상식으로 우리의 불편함을 파헤쳐 볼 수 있을까요? 대개 불편함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에서 비롯한다고 봅니다. 둘째 아들을 찬찬히 묵상해 봅니다. 그는 포도밭 일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 된 이가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기도 힘들었겠지요. 일은 하기 싫으나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둘째 아들은 포도밭에 가겠노라 답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네 삶의 모습이니깐요. 하기 싫은 일이 더 많고, 그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쉽고 하고 싶은 일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니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어정쩡한 중간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세, 이런 자세가 오늘 복음의 예수님보다 더 알립지 않으신가요?

만아들은 솔직하게 ‘싫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 일을 하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솔직하였습니다. 시대의 죄인으로서 솔직한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이들이었지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긴가민가 몽그적거리는 자세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너무 약하여 포도밭까지 걸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빌고 빌 뿐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십사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뿐입니다. 세리와 죄인 취급받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 뿐입니다. 이 못난 사람도 하느님 나라에 가고픈 마음이 있으니까요.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106차 세계 이민의 날(2020년 9월 27일) 담화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국내 실향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올해 초 성좌 주재 외교사절단과의 만남에서 저는 현대 세계에 주어진 도전 과제들 가운데 하나인 국내 실향민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더욱 부추겨진 갈등과 인도적 위기 때문에, 실향민이 늘어나고 이미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많은 나라들에서는 실향민의 필요에 부응할 적절한 체계가 부족합니다”(성좌 주재 외교사절단에 한 연설, 2020.1.9.).

이러한 특수 분야에서 교회의 사목 활동을 이끌고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산하의 이주사목국에서는 문서 “국내 실향민에 관한 사목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는 국내 실향민을 위하여 이 담화를 전합니다. 흔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국내 실향민의 비참한 처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확산이 촉발한 전 지구적 위기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맹렬한 기세로 심각하게 지리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위기 탓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는 다른 많은 시급한 인도적 위기들이 과소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생명을 구하는 데에 근본적이고도 시급히 필요한 국제 원조와 계획들은 국내 정치 의제들 다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다른 긴급 상황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로마와 전 세계에 보내는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 2020.4.12.).

2020년을 물들인 비극적 사건들을 감안하여, 저는 국내 실향민을 위한 이 담화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불안하고 내쳐지고 소외당하며 거부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이에게도 전합니다.

우선, 비오 12세 교황님의 교황령 「이민 가정」(Exsul Familia, 1952.8.1.)에 영감을 준 표상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집트로 피신하신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부모님과 함께 실향 난민의 비참한 상황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이집트

피난살이는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간이었습니다(마태 2.13-15.19-23 참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수많은 가정이 그와 같은 슬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는 기아나 전쟁, 다른 심각한 위험을 피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존엄한 삶을 찾아 떠난 난민들의 소식이 연일 보도됩니다”(삼종 기도 훈화, 2013.12.29.). 헤로데 시대에 강제로 피신을 떠나야 하였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며, 헐벗으시고, 병드셨으며, 나그네이시고, 감옥에 갇히시어 도움을 청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마태 25.31-46 참조). 그분의 얼굴을 알아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누더기 옷과 더러운 발, 일그러진 얼굴과 상처투성이 몸을 지닌 채 우리말을 쓰지 못해서 우리 눈이 그분을 알아보는 데에 비록 어려움이 따를지라도”(성녀 마르타의 집 미사 강론, 2019.2.15.), 실향민은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과 만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네 동사,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로 사목 과제에 응답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네 동사는 제가 지난 2018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에서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동사들에 더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하는 여섯 쌍의 동사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여섯 쌍의 동사들은 각각 상관관계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합니다. 앎은 타인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루카 24.15-16). 이민과 실향민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너무도 자주 통계만 들먹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민과 실향민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 때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불안감을 실향민들은 그들 삶에서 끊임없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기에 필요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루카 10,33-34). 두려움과 선입견은 - 수많은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 다른 이들과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과 ‘이웃이 되는’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최근 몇 개월간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가르쳐 주었듯이, 다른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흔히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봉사하는 일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한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겹옷을 벗고 무릎을 꿇어 당신 손이 더러워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요한 13,1-15 참조).

화해하기 위하여 귀 기울이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의 귀로 인류의 탄식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요한 3,16-17). 화해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랑은 귀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더욱더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청의 자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겸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청을 통해서만 참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몇 주에 걸쳐 길거리는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장이 맴도는 불안한 침묵, 그러나 이 침묵은 더 힘없는 이들, 실향민들, 심각하게 병든 우리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이웃과, 버림받은 수많은 이들과, 우리

자신과 화해할 기회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과도 화해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나누기가 필요합니다. 나눔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사도 4,32).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지구의 자원들이 소수에게만 유익한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성장하려면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는 모두 한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걱정거리와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통하여,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약관화해졌습니다. 참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께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드린 그 아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오천 명이 배불리 먹기에 충분했습니다!(요한 6,1-15 참조)

발전하기 위하여 참여하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요한 4,1-30 참조). 주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을 진리로 이끄시어 그 여인이 다음과 같이 기본 소식의 선포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요한 4,29) 이따금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려는 열정에 가려 다른 이들이 지닌 진정한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 감염증 확산은 우리에게 공동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흔히 무시당하는 이들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기여가 있어야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환대와 형제애와 연대를 도모하는 용기를 가져야”(성 베드로 광장에서의 묵상, 감염증

확산 시기 특별 기도, 2020.3.27.) 합니다.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하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사도가 코린토 공동체에게 한 권고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코린 1,10). 하느님 나라의 건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 임무이기에, 우리는 질투나 반목이나 분열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협력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이기심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치단결해야 합니다”(로마와 전 세계에 보내는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고 태초에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에 더욱 맞게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제 협력과 전 세계적 연대와 지역적 책무 이행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구하고자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던 요셉 성인의 모범에서 영감을 얻은 기도로 저는 이 담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요셉 성인에게 맡기시어
사악한 이들의 간계와 위협에서 보호하게 하셨으니,
저희도 요셉 성인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하소서.

권력자들의 박해를 피해 떠나야 하는 고통을 겪은 요셉 성인이,
전쟁이나 가난 또는 여러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 헤매며
난민의 여정을 견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요셉 성인의 전구로
난민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슬픔 속에서 위로를, 시련 속에서 용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친아들로 사랑하고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리아를 든든히 지켜 준
이 의롭고 현명한 아버지인 요셉 성인의 자애를
난민을 맞아들이는 이들도 맞볼 수 있게 하소서.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이들이
손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 요셉 성인의 보살핌에 힘입어
노동의 존엄과 가정의 평안을 찾게 하소서.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충실한 배필로 동정 마리아를 사랑하였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아기 예수님을 구했나이다.
성모님의 전구에 이 모든 청원을 맡겨 드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황, “교계 언론, 코로나19 시대에 희망 줘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계 언론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황은 “교계 언론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과 믿음을 전해,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는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교계 언론을 비롯한 사회홍보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9월 18일 교황청에서 벨기에 가톨릭 주간지인 ‘테르티오’(Tertio) 직원들 알현을 받고 이 같이 당부했다. 교황은 이날 “교계 언론 종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전하는 전령이 돼야 한다”면서 “미래가 긍정적이고 가능할 것으로 보일 때에만 현재 삶 또한 살아갈 만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황은 교계 언론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지성인 목소리를 담아 세속화된 언론 환경에서 건설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을 주문했다. 교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보는 우리 일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면서 “언론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 태도와 행동에 영감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세상에서 교회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는 교계 언론은 사람들의 양심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신문>

1 조상들을 위한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월 1일(목) 저녁 8시 : 미사 참석은 **선착순 100명**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 미사는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 연미사 신청 : 사무실(703-968-3010)

2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3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4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유아세례 안내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

-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금 금액을 알려드리니 체크에 적을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ST.PAUL CHUNG CATHOLIC CHURCH (#1937)
- LAST DATE : 10/31/2020
- Refund Amount(2.55X4 weeks) : **\$10.20**
- 이메일 : ctimesusa@gmail.com
- 전화번호 : 323-351-7788

8 문화부 봉사자 모집

- 문화부 활동과 가톨릭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그래픽디자인, 음향장비**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정주용 토마스 (703-509-2287, juyong_j@hotmail.com)

9 2020-2021 주일학교 등록 안내

- 대상: 유치부 - 12학년(K - 12th grade)
- 등록비: 한 자녀/한 가정 \$50, 두 자녀/한 가정 \$90, 세 자녀 이상/한 가정 \$130
- 등록 방법: **본당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 등록 기간: **9월 30일**까지
- 수업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수업 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수업 (상황 개선 시엔 대면 수업 예정)
- * 온라인 등록 문의: 윤정 보일 CCD 교감
☎ (703)371-3589 주일학교
✉ spc15.re.admyc@gmail.com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6주 주간: 바룩 4-6, 2베드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9월 20일(연중 제25주일)

주일헌금	\$2,037.00
교무금	\$6,2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500.00
감사헌금	\$600.00
합계	\$12,407.00

-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9월 30일(수) 오전 6:15-6:45 | 10월 3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유일신 야훼신앙 탄생'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10월 1일(목) 오후 5:00-6:00
- 10월 2일(금) 저녁 8:00-9:00
- 10월 4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평화방송 주최 심포지엄 **펜데믹과 교회 - 1. 펜데믹과 종교**